

2월

February, 2009

목차

- 연변과기대 졸업생의 편지 - 김설매 자매
- 연변에서 날라온 편지
- 유타대학춘소식



미 유타대학춘교회 월간소식지

The Soullake

통권 제 59호 (9) - 02

2009년 2월 22일

연변과학기술대학 졸업생의 편지

사랑하는 총장님,

그간 강권하셨나요? 총장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곁에 있을 때보다 멀리서 총장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짝해지며 더욱 사랑과 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0일에 거쳐 3개 성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목회하시는 선생님들과 일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양떼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참으로 아버지는 놀라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양떼들에게 꿀을 먹이시고...

작년 8월 방학에 중국을 한 바퀴 돌면서 그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처음 단에 서서 중국어로 한 시간 반을 말씀 전할 때는 많이 부담스럽고 전하고 내려와서 너무도 아버지 앞에 양떼들 앞에 너무 민망하고 스스로 보기에 성령의 감동함이 부족했구나 중국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곳에서 이틀 동안 400여명을 대상으로 7시간을 중국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할 말이 나오는지, 한국어로도 몇 시간, 몇 백 명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본적이 없는데... 정말 아버지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

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리 은혜를 주시는지요.

또 다른 한 곳은 주일날 단에 서서 말씀 전하기도 했구요, 거기도 이삼백명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한 곳에서 거기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 한 사람이 아래 5만 명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임들이 몇 개나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일년을 돌아도 한 번씩을 못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능력 받아야 됨을,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함을 너무 실감나게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무르익은 들판을 보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 드리며 거기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 드립니다.

감사, 감사, 도 감사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총장님, 늘 마음에 품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는 일들마다 더 능력있게 잘 감당하도록 더 많이 품어 주세요. 총장님 후원해주신 것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좋은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권하시기 바라며,
총장님을 사랑하는 설매 올림.

*김설매 양은 본교 졸업생으로서 총장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역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음.



김설매 자매



연변에서 날라온 편지

5년 전에 지나간 유학생생활을 마감해가는 이 때 짚어 저는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에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단 한 초도 주저하지 않고 “과기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과기대는 저한테 성전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고 제 마음 속의 영원한 집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기대 생각만 하면 불안한 마음에 포근한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스스로 떠오릅니다.

힘겨운 유학 생활 중에도 종종 혼잡한 세상 속에서 시선이 흐려지고 주님의 얼굴이 분명치 않게 보일 때도 과기대는 풋대같이 저의 흠어진 맘을 다시 잡아주고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게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고아같이 방황하던 20대에 과기대와와의 만남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들을 버리고 이곳 죄 많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이곳 허허벌판에 찾아오신 과기대 교수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은 지나간 겨울 끝에 불어온 한 줄기 봄 바람 같이 딱딱히 얼어붙어 있었던 저의 맘을 서서히 녹이시고 제 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 속에서 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2004년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저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한달 머물렀습니다. 그 때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이신 로링 커닝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 각성을 통해 미주 대륙에 부흥의 불길 타오름으로 복음이 미국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나갔듯이 자그마한 한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커다란 중국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세계의 복음화는 이 땅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맘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미국에서 학문과 영적인 훈련을 마치고 복음을 들고 다시 중국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링 커닝햄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벅차게 했습니다.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모교가 그리워서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좋아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고아같이 방황하던 20대에 과기대와와의 만남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들을 버리고 이곳 죄 많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주신 엄청난 역사의 소명을 짊어지고
저는 중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모교에 돌아온 지도 5년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따뜻하게 반겨준 모교에서 보낸
지난 5년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인 저를 끝까지 감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같
이 동역 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소중한 강당에 세워주셔서 많은 후
배들에게 지식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
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종종 행복의 눈물을 흘리곤 합
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고 왔었지만
결국은 되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영혼
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
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도 능력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목격하면서 사는 축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오기까지 피눈물 나는 외로움과 어
려움을 이겨내시면서 곳곳이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어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기
도와 물질로 섬겨오신 수많은 후원자 분들의 헌신을 이 시
간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새로운 2009년에도 더더욱 주
님을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은 보안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 중국에서 ㅇㅇㅇ올림



“여오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안 자는 지예와 운
계를 멸시아느니라”

/ 잠언 1:7

유타 대학촌 소식

2 월 선교부소식

1. 지난 1월 페니 모으기에 \$107.29가 모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살롬 목장에서 섬기는 평양 과기대에 관한 선교보고를 2/8/2009에 해주시겠습니다.
3. Soul Lake 3월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집인 송 강 형제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리상형제의 탈북체험을 참지하 형제가 쓴 “미디엄 레어” 도서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최희석 선교부장에게 연락해주시면 함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사님께서서는 목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후 교회입구에 있는 대학촌교회 목장가족들 사진 붙이는 곳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월 교회기도제목

1. 감사의 달을 맞아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2. 감사의 달을 맞아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3. 말씀은 갈급함으로, 기도는 전심으로, 찬양은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SoulLake 편집 후기

유타대학촌교회 성도님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

대학촌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일	1부 예배	09:50 AM	주중	08' 새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금요찬양예배	금 07:00 PM
	Youth	09:30 AM		청년부 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자훈련	목 06:30 PM
	한국학교	01:30 PM		Provo 제자훈련	화 07:00 PM
	제자훈련	02:30 PM	캠퍼스 730 Live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07:30 PM	

발행인: 김철홍 목사 / 편집인: 최희석, 송강 / 발행일: 2009년 2월 22일

유타대학촌교회 회지복간 제 59호

1724 E. 2100 S. Salt Lake City, Utah 84106

전화: 801-467-4337 (교회), 801-943-3904 (담임목사관) / Email: chulhongkim58@hotmail.com

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교회 홈페이지(<http://www.ucccutah.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